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2009년 쌍용차 파업으로 청구된 47억 손해폭탄.
2022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무려 13년이 걸렸고, 그 동안 고통받으며 죽어간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만 30여 명입니다.



2003년 부당해고를 당한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
원청 대표가 부당해고의 책임이 있는 진짜 사장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는 데만 7년이 걸렸고
그 후로도 13년 동안 '다른 회사라고 발뺌하는 현대중공업과
교섭 한 번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노동자 살리는 민생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노조법 2·3조 개정 오해와 진실



파업하기 쉬운 '불법파업 천국'이 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 범위가 넓어지면서 불법 파업 딱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어기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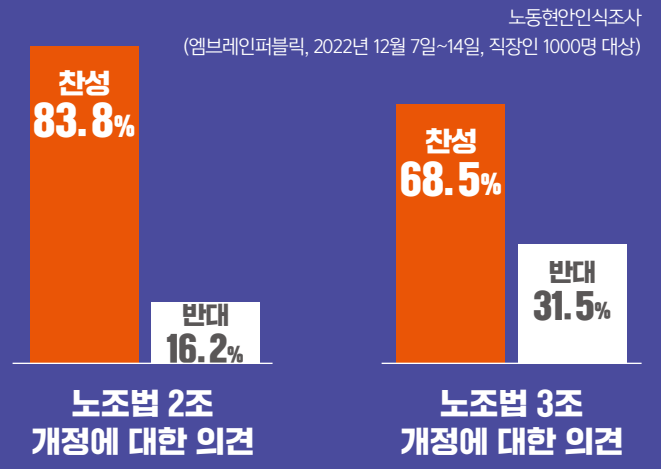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불명확한 전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국민 70% 이상 동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무엇인가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도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3조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정당한
5가지 이유

노동조합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진짜 사장과의 교섭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노조법 2조 2호 = 사용자 범위 확대

- 내용**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추가
- 효과**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실질적 권한이 있는 원청 사장과 직접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조건 및 노동자 권리 향상

Before

주 60시간 일하는데
연차도 휴가도 없어요.
기름값, 밥값도 모두 제가 부담하죠.
과로로 죽어간 동료만 벌써 25명인데,
택배사는 교섭 의무가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해요.



택배기사 김OO씨

After

참다 못해 하청 사장 찾아가면
'나는 힘이 없다'고 외면.
원청 사장 찾아가면 '교섭 의무 없다'고 외면.
**이제, 수많은 간접 고용,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파업 허용범위 확대로 회사 강제하는 노동자의 힘 강화

노조법 2조 5호 = 노동쟁의 개념 확대

- 내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임금 협상이나 단체교섭 중 갈등이 생겼을때 외에는 모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권리침해 했으나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확대됨
- 효과** 임금인상, 단협체결 등 이익 분쟁을 넘어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법 위반 등의 권리분쟁도 쟁의에 포함하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확대

Before

SPC(파리바케트 등) 대리점이
2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화물차 운행 강도도 2배 이상 높아졌죠.
SPC에서 고작 2대 증차해 준다고
협약해 놓고 그마저도 안 지키는 거예요.
운송 거부 파업 했는데
89명 입건되고 1명이 구속됐어요.



화물 노동자 최OO씨

After

일방적인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회사가 약속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과거에는 파업을 하면 불법이었으나
**이제, 합법적인 파업이 되면서
회사를 강제하는
노동자의 힘도 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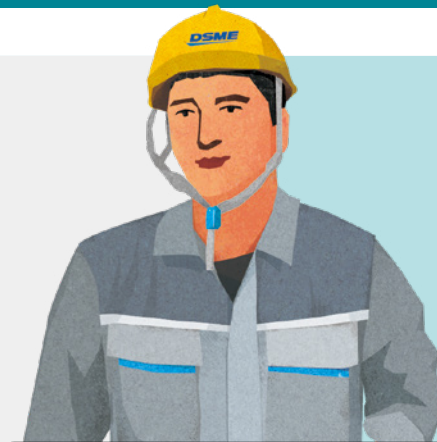
노동권 말살하는 문지마 손배 폭탄 제동

노조법 3조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내용** 노동자 개인의 귀책사유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신원보증인(가족 등)에게는 손배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변경
- 효과** 사용자가 구체적 입증도 없이 노동조합과 가족들에게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관행 청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Before

경력 15년인데 연봉이 3400만 원이에요.
불황기 5년 동안 30% 임금 삭감한 거
원상 회복해 달라고 했죠.
회사가 안 해주어서 파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5명에게 손해배상 470억 원 청구한
거예요. 한 푼도 안쓰고 1300년을 일해도
못 갚을 돈이에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OO씨

After

'일하다 다쳐도 참아라'
'임금이 깎여도 참아라'
'쌍용차 꿀 못 봤냐'
'대우조선해양 사람들 꿀 못 봤냐'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손배 폭탄 때문에 말 한마디 못했던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가 가능해 집니다.**

1

84%

노동자가 원합니다
2022년 12월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1000명 중 83.8%가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2

70%

국민이 지지합니다
2023년 1월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3



법원도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CJ대한통운, 하청 택배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 의무 있다고 판결
대법원: 쌍용차, 현대차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

4



변화된 고용형태에 부응합니다

1953년 정규직 중심으로 제정된
노동조합법 70년간 유지.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다변화된 고용형태에
맞는 사용자, 노동자 정의 필요.

5



국제 협약에도 부합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이 2022년
4월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발생.
국회와 정부의 의무 이행 필요.